정신문화연구 2007 여름호 제30권 제2호(통권 107호) pp. 231~263.

研究論文

『長興府諸島量案』의 분석
- 1846년 全羅道 南海 沿岸 島嶼지역의 陳田·新田開墾 실태 -

정 승 진*

Ⅰ. 머리말
Ⅱ. 장흥부 제도면의 자연지리적 배경
Ⅲ. 장흥부 『제도면양안』의 개황
Ⅳ. 제도면 경지의 陳田·新田開墾 실태
Ⅴ. 제도면 농민층의 경영실태: 영세 소농의 퇴적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Ⅰ. 머리말

전라도 서·남해 도서지역은 오랜 세월 동안 궁벽한 오지, 무주한광지, 유배지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 이 일대는 여말선초의 왜구 침입 이래 오랫 동안 이른바 공도정책(空島定策)이 시행되다가, 17세기 이래 이주민의 유입과 경제적인 발전이 나타나면서 역사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서·남해의 많은 도서지역이 비록 독자적 설읍(設邑)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해방(海防)의 중요성 및 18세기 중반 제도면(諸島面)의 설치와 함께 체계적인 모습으로 발전하였다.[1] 이 일대는 17세기 이래 한국 개간·간척사에서 소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서남해 도서지역이 단순히 낙도 어촌일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이곳은

* 워싱턴주립대학교 잭슨국제학부 방문학자, 한국경제사 전공(tateusch@hanmail.net).

1) 金京玉, 「朝鮮後期 西南海 島嶼의 社會經濟的 變化와 島嶼政策 硏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육지와 마찬가지로 농업이 주업을 이루고 어업이 겸·부업의 형태로 전자를 보완하는 농촌지역이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 글에서 다루는 완도(莞島)의 경우 "도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을 주로 하고 어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많지 않다"고 한다.[2] 1910년 현재 전업 어업호수(戶數)는 전체 9,643호의 7.5%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농민은 전작(田作) 농민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아마도 교통수단, 시장조건, 어로기술 상의 한계가 그 배경으로 이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낙도·어촌이라는 일반적 이미지를 넘어서는 도서지역의 실상은 이 일대의 생태형(ecosystem)이 육지의 산간농업지대와 유사한 특징을 노정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남해 도서지역에서의 개간활동은 조선전기 이래 주로 특권 '지주층'이 토지소유를 확대시켜가는 방편으로써 널리 행해졌다. 특히 왕실과 아문(衙門) 그리고 중앙관료 등 특권 신분층은 연해(沿海)지역에 대규모 개간·간척사업을 행하여 대지주로 성장하였다.[3] 이같은 상황은 양난(兩亂) 이후 병작지주제가 확대되는 과정과 동시병진하고 있으며, 궁방전(宮房田)의 성립과정의 전사(前史)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이전 시기부터 진행되어 온 군사적 목적의 각종 군둔(軍屯), 아문둔(衙門屯)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안·도서지역의 개간·간척 활동은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과정 속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저평(低平)·저습지(低濕地)에 대한 15~16세기의 개간 활동은 17세기 무주진전(無主陳田)에 대한 개간활동으로 확대되었다.[4] 17~18세기에 걸쳐 언답(堰畓), 동답(垌畓)에서 저여지(沮洳地) 개간이 진전되고 연해(沿海)·하안(河岸) 일대에서 몰락농민을 유입하는 형태로 지주제가 확대되었다.[5] 특히 이 시기에 궁방전의 확대는 서남해 연안·도서지역에 대한 절수(折受)의 형태로 두드러지고 있었다.[6]

---

2) 朝鮮總督府農商工部編, 『韓國水産誌(第三輯)』(朝鮮總督府, 1910), 232쪽.

3) 李泰鎭, 「15·6세기 한국 사회경제의 새로운 동향: 低地 개간과 인구 증가」, 『東方學志』, 64(1989); 李景植, 「17世紀 農地開墾과 地主制의 展開」, 『韓國史硏究』, 9/1(1973); 宋讚燮, 「17·18세기 新田開墾의 확대와 經營形態」, 『한국사론』, 12(1985); 安秉珆, 『朝鮮近代經濟史硏究』(日本評論社, 1975); 朴準成,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 『한국사론』, 11(1984); 李榮薰, 『朝鮮後期社會經濟史』(한길사, 1988).

4) 이경식, 앞의 논문(1973); 이태진, 앞의 논문(1989).

5) 송찬섭, 앞의 논문(1985).

6) 김경옥, 앞의 논문(2000); 宋亮燮, 「조선후기 나주제도의 절수와 설읍논의의 전개」, 『大東文化硏究』,

갑술양전(甲戌量田 1634)과 경자양전(更子量田 1720) 사이에 많은 무주한광지가 가경전(加耕田)으로 사출(査出)되었다. 그 개간의 주체는 25부(負) 미만의 극빈농층, 무전농민층이 주류를 점하였다. 소농층의 개간과 궁방의 절수문제는 결세문제, 설읍논의 과정에서 복잡한 소유권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하였다. 경자양전 이후 중앙정부의 양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전개간의 양상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른바 사진(査陳) 양전이라하여 읍별로 간헐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7] 19세기 읍양전으로서 고부군성포면(古阜郡聲浦面) 양안, 영광군서부면(靈光郡西部面) 양안 등이 있지만,[8] 19세기 은루결(隱漏結)의 사출(査出), 진전(陳田)의 양상, 신전(新田)개간의 전모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글이 사례 대상으로 삼은 장흥부 도서지역(현 완도군)에 대해서는 일찌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주관하에 <다도해 도서지역의 연구>의 일환으로 도서의 생태형에 대한 풍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 글은 19세기 당시 장흥부 관할의 평일도(平日島),[9] 생일도(生日島)[10] 등 장흥부 제도(諸島)에 관한 두 개의 특집과 최근의 단행본에 힘입은 바 크다.[11] 이 글은 기존 연구를 배경으로 19세기에 남아있는 장흥부 도서지역의 읍양안(邑量案)을 이용해 농업의 기초조건으로서 경지실태를 구체적으로 구명하려는 것이다.

50(2005).

7) 吳仁澤, 「朝鮮後期 新田開墾의 性格: 肅宗代 南海縣 庚子量案의 加耕田을 중심으로」, 『釜大史學』, 18(1994); 吳仁澤, 「18세기 중·후반 査陳의 실태와 성격」, 『釜山史學』, 31(1996).

8) 金容燮, 「「古阜郡聲浦面量案」의 분석」, 『東方學志』, 76(1992); 鄭勝振, 「「靈光郡西部面改量案」의 분석」, 『大東文化硏究』, 34(1999).

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의 <전남 莞島郡 金日地域(平日島) 調査報告>에 수록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해준, 「平日島 지역의 연혁」; 최성락, 「평일도의 선사유적」; 신순호, 「金日地域의 사회구조」; 조경만, 「금일지역 어민들의 생업과 공동체: 忠島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광민, 「평일도 '무레꾼'(海女)들의 조직과 기술」; 곽유석, 「평일도의 쟁기」. 이상 『島嶼文化』, 10(1992).

10) 여기에 수록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고석규, 「완도군 생일도 鶴棲菴의 역사와 '재판' 시말」; 홍석준, 「종교 담론의 문화적 특성과 그 의미: 전남 완도군 생일도의 사례」; 이경엽, 「생일 사람들의 민속생활과 민속 생태학적 환경 인지」; 신순호·조영태, 「생일지역의 사회·공간 구조」; 신순호, 「생일지역의 인구 구조」; 김영태, 「민주화 이후 생일지역 선거참여와 정당·후보지지」; 김준, 「근대 어업의 형성과 공동어장의 변용」; 박종철·문병채, 「생일면 면소재지(서성리)의 토지이용실태 분석」; 문병채, 「생일도의 자연 및 인문자원의 관광자원화 연구」. 이상 『島嶼文化』, 22(2003), <기획: 완도군 생일도 공동 연구>.

11) 최성락(외), 『다도해 사람들: 역사와 공간』(景仁文化社, 2003).

II. 장흥부 제도면의 자연지리적 배경

장흥군은 전라남도의 남단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보성·고흥군, 서쪽으로는 강진군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영암·나주·화순군, 남쪽으로는 완도군과 남해 일대를 공유하고 있다. 지세는 북고남저형으로 남북으로 협장(狹長)한 지형을 보인다. 사례의 대상인 제도면은 장흥군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연안 저지대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지대 구분상 전남도작지역(全南稻作地域)에 속하지만, 다도해연안도작지역(多島海沿岸稻作地域)에 가까운 자연지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12] 전남도작지역의 경우 수도작이 약 70%, 전작이 30% 전후인 것에 대해서 다도해연안도작지역은 수도작과 전작이 50% 대에서 비슷한 양상이다. 한국 제1의 다우지역(多雨地域, 연강수량 1,247mm)으로 전작(田作)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이 일대는, 전남도작지역(全南稻作地域)과는 상이한 생태형(ecosystem)을 보이고 있다.

장흥부 제도면 일대는 조선시대 만호진(萬戶鎭)이었던 회령포진(會寧浦鎭)의 관할구역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조선전기 이래 장흥 남부 회령포에 수군(水軍) 만호가 설치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1895년 폐영(廢營)될 때까지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의 관할 하에 있었다.[13] 1895년(고종 32년) 서남해 도서지역에 지도군, 완도군, 돌산군이 설치되면서 장흥부 제도면에 부속한 도서지역은 완도군의 평일면, 산일면 등으로 편제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 결과 장흥군에서는 이전의 대흥면(大興面)과 내덕도(來德島)가 합쳐져 대덕면(大德面)으로 통합되고, 완도군에서는 금일도, 평일도, 생일도 등 도서지역이 완도군 금일면(金日面)으로 통합·편제되었다.[14] 다음의 <그림 1>은 19세기 후반 회령포진을 중심으로

12) 全南稻作地域은 영광, 함평, 장성, 광산, 나주, 담양, 곡성, 화순, 구례, 광양, 순천, 보성, 장흥, 강진 등 14개郡에 걸쳐 있다. 多島海沿岸稻作地域은 전남의 여수, 고흥, 완도, 해남, 진도, 영암, 무안, 경남의 통영, 남해군 등 2개道 9개郡에 걸쳐 있다. 久間健一, 『朝鮮農業經營地帶の硏究』(農業總合硏究刊行會, 1946), 422, 429~437쪽.

13) 萬機要覽(1808), 湖左水營誌(1847)에 따르면, 全羅左水營은 僉使 2인, 萬戶 4인, 別將 1인으로 편제되었다. 鄭淸柱, 「全羅左水營의 역사」, 『全羅左水營의 역사와 문화』(順天大學校博物館, 1993), 12, 20쪽.

14) 현재 완도군에 속하는 남해 도서지역은 구 해남군의 4개 도서, 영암군의 24개 도서, 강진군의 13개 도서, 장흥군의 13개 도서를 포괄하는 지역으로서 이 가운데 장흥군의 도서지역은 완도의 동북향에 위치한다.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朝鮮總督府, 1917), 441~442, 446쪽.

한 장흥부 제도면 일대의 개황도이다.

<그림 1> 장흥부 회령포진 개황도(대동여지도 1861)

회령포진은 장흥의 진산인 천관산(天冠山) 아래 남방 10리(里)에 있는 해방(海防)의 요충지이다. 내덕도는 회령포진 관아 동쪽으로 2리, 선자도 및 진목리 일대는 서남향의 곶(串)으로 3리 거리에 있다. 지도상에서 선자도는 선자촌(扇子村)으로 표기되어 있고 진목·가옥 일대와 함께 내륙의 연안지역에 속한다. 내덕도는 석교(石橋)로 진 관아와 연륙(連陸)되어 있어 흥미롭다. 반면, 도서지역의 중심지

인 평일도는 진 관아로부터 남향으로 30리, 금당도는 동남향으로 20리, 생일도는 서남향으로 30리, 득량도는 동북향으로 40리 거리에 위치해 있다. 덕우도는 생일도의 남향 2리에 위치한 부속도서이다.[15] 조선후기 이래 평일도, 생일도, 금당도에는 송봉산(松封山)이 설치되었고, 그 보다 오랜 전부터 득량도, 내덕도에는 목장(牧場)이 설치되었다. 이 일대는 18세기 중후반에 들어서 장흥부 제도면으로 승격·편제되었지만, 평일도의 우측에 있는 금당도는 여타 지역과 소유구조가 상이했기 때문에 고읍면(古邑面)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득량도는 지리적 위치상 회령면(會寧面, 현재 寶城郡 會泉面)으로 편제되었다.

조선후기 들어서 도서지역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면서 중앙 정부의 관심도 증대하였다. 도서지역에는 내륙의 유이민들이 생계, 피역(避役), 전란, 유배 등의 이유로 입도(入島)하였다. 어염 및 목재 제조, 목장 및 봉산의 개간 등 경제적 유인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17세기 이후 개간이 진전되면서 제도면에 대한 입도인(入島人)은 증가 일로에 있었다.[16] 도서지역에서는 다수의 집락이 형성되고, 18세기 중반 지방행정제도의 강화와 함께 제도면(諸島面)이라는 행정면으로 발전하였다. 크고 작은 도서를 1개의 면(面)으로 편제하고 그 명칭을 제도면이라 칭하였다. 장흥부의 경우 『장흥읍지(長興邑誌)』(1747) 단계까지도 제도면은 성립하지 않고 있었지만 『여지도서(輿地圖書)』(1759) 단계에서부터 제도면이 인근의 육지면(面)에서 분리되어 공식적인 행정면으로 등장하고, 이어서 『호수총수(戶口總數)』(1789) 에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17]

<표 1> 18세기 후반 長興府와 珍島郡의 戶口總數

長 興 府				珍 島 郡			
面	里數	戶數	口數	面	里數	戶數	口數
府內面	9	598	1,677	邑內面	1	669	1,792
府西面	40	686	1,902	命山面	10	293	1,215

15) 『全羅左道長興府會寧浦鎭誌古蹟』(1871).

16) 김경옥, 앞의 논문(2000), 113쪽; 『장흥군지』(郡誌편찬위원회, 1993); 『대덕읍지』(장흥문화원, 1996); 『마을유래지』(장흥군, 1986) 참조.

17) 長興文化院, 『長興地理志·邑誌모음』(향토자료총서 제1집, 1992), 47쪽; 김경옥, 앞의 논문(2000) 참조.

安壤面	22	943	2,041	臨淮面	32	864	3,645
會寧面	21	465	1,344	三村面	12	243	963
泉浦面	16	229	557	郡內面	28	1,051	3,950
熊峙面	15	337	999	古郡內面	27	1,074	4,237
龍溪面	13	454	1,016	義新面	22	1,194	5,030
夫山面	8	224	868	牧場面	18	667	2,373
府東面	12	656	1,576	諸島面	29	591	1,997
古邑面	29	484	1,259				
大興面	14	754	1,822				
諸島面	24	713	2,035				
長東面	12	246	910				
富坪面	17	326	815				
長西面	22	395	953				
有恥面	37	455	1,189				
16面	312里	7,965	20,983	9面	186里	6,646	25,013

출전 : 『戶口總數』(1789), 서울大學校 奎章閣(1996), 160~162쪽, 175~176쪽.

<표 1>을 통해 장흥부 제도면의 면세(面勢)를 보면, 총24개리, 713호, 2,035구로 호구상으로 볼 때 군내 제2위의 '거면(巨面)'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타 면에 비해 리당 호구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득량도(得良島)가 회령면(會寧面)에 속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제도면의 면세는 표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크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상황은 진도군(珍島郡) 제도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흥부의 제도면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호구수에서 군내 여타 면과 비견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591호, 1,997구). 18세기 후반 들어서 여러 도서지역은 이와 같이 육지면과 동등한 지방 행정체계로 편입되고 있었다. 제도면이라는 행정구역 상의 격상이 독자적인 군·현의 형태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도서지역이 이전의 절도(絶島)로서의 무주 공한지가 아니라 육지의 면(面)과 동등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당시의 지역 위상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III. 장흥부 『제도면양안』의 개황

19세기 중반 장흥부 제도면 양안(量案)은 명빈방장토(嫫濱房庄土)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제도면의 명빈방장토는 17세기의 전형적인 2종유토였지만 1695년 을해

정식(乙亥定式)의 영작궁둔례(永作宮屯例)에 의거해 소유권을 확정하고 도조(賭租)를 인상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장토는 조선 초 사복시 목둔(牧屯), 훈련도감 군둔(軍屯)전으로 성립하다가 어의궁(於義宮)으로 이속되고 재차 1699년 명빈방으로 이관된 것인데, 이후 유혈의 소유권 분쟁을 겪었다.[18] 제도면에 속하지 않는 평일도 인근의 금당도는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재정부서인 양향청(糧餉廳)의 장토였기 때문에 회령포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서도 제도면 양안에는 수록되지 않았다.[19] 이렇듯 도서지역은 자연지리적 조건보다는 사회정치적 조건에 의해 당해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었다.

장흥부 제도면의 명빈방장토는 '영사패면세례(永賜牌免稅例)'에 따라 당시 결세에 해당하는 미 40두(租 100두)의 도조를 수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1699년 해당 장토가 명빈방으로 이속된 후 도조는 그 2배인 결당 조(租) 200두로 인상되었다. 1720년 전라감사의 장계가 있기까지 제도면의 명빈방장토는 도조 수준과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궁방과 농민간에 분쟁을 겪었던 듯하다. 1720년 호조는 제도면의 해당 장토가 명빈방의 '영작궁둔'임을 판결하고 결당(結當) 도조 100두에서 200두로 인상한 면빈방의 입장을 지지하였다.[20] 당시 결당 조 100두(미 40두)는 민전(民田)에서의 결세 수준에 해당하고, 조 200두는 민전에서 병작반수(竝作半收)의 도조(賭租) 수준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도조의 인상은 궁방의 강압에 의해 2종유토가 사실상의 사적 지주제로 이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취해지던 수단이었다.

이듬 해인 1721년 장흥의 제도면 주민들이 장토에 부과한 과다한 도조에 불만을 토로하는 가운데, 도조의 수준을 둘러싼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경종1년(1721) 다음과 같은 상반된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21]

---

18) 이후의 이속과정은 內需司→宜嬪房→淑善翁主房→摠衛營→龍洞宮 순이다. 李榮薰, 「宮房田과 衙門屯田의 展開過程과 所有構造」, 『朝鮮後期社會經濟史』(한길사, 1988), 185, 224쪽; 이영훈, 「量案上의 主規定과 主名 記載方式의 推移」,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민음사, 1997), 135쪽.

19) 金京玉, 「朝鮮後期 金塘島 移住民의 入島와 封山運營」, 『島嶼文化』, 제17집(2001), 27쪽.

20) "全羅監司申思喆狀啓 長興府平日島山日島來德島得良島眞木里等 折受於於義宮 依永賜牌免稅例 田一結捧太六十斗 畓一結捧米四十斗矣 己卯[1699] 移屬嬪濱房之後 田一結捧太二百斗 畓一結捧米八十斗 絶島窮民 呼冤太甚 一依於義宮例徵捧 令該曹稟處 本曹啓目 乙亥[1695]定式 永作宮屯 則每負捧租二斗 民結免稅 則捧米二升三合 依定式以租支計 宜以此知委何如 依允." 李榮薰, 「宮房田과 衙門屯田의 展開過程과 所有構造」, 『朝鮮後期社會經濟史』(한길사, 1988), 185쪽(원자료: 『度支志』外篇 卷五 宮結).

A) 좌부승지 金在魯가 장흥땅 平日島, 山日島, 來德島, 得良島 및 眞木里 등지는 근 백 여년 전에 유이민들이 힘을 모아 개간하여 世傳, 賣買, 相傳하였습니다. 처음에는 於義宮屯에 속하였다가, 지금은 嫔濱房에 永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田庄이 해당 宮에서 스스로 마련한 것이 아닌데도 差人輩들이 永作宮屯이라 칭하면서 침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궁에서는 답 1結에 米 80斗, 전 1결에 太 200두를 납부하도록하여 이 모두가 民結의 3~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B) 閔鎭遠이 平日島 등 모든 섬의 收稅의 과중한 일에 대해, "이들 섬은 司僕牧場, 訓練都監의 屯田인데, 중간에 於義宮에 이속되고 지금은 嫔濱房에 속해 있습니다. 사복목장은 본디 公田이고 훈국둔전은 국초에 섬을 折受하여 募民起墾한 것인데, 民人들이 소위 자기네 世傳田土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당초에 陳荒地를 민인들의 힘으로 起耕하였다고 하나 이는 公田이지 私田이 아닙니다. 그런즉 永作宮屯이므로 乙亥定式에 따라 收稅한 것이니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22]

인용문 A)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첫째, 장흥의 평일도, 생일도 등에서는 적어도 17세기부터 진황지를 개간하여 토지를 세습하면서 경작하고 있어서, 이들의 입도(入島), 개간시기는 17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따라서 民結免稅의 民田), 둘째, 문제의 도서·연안 지역은 유이민의 사적 소유지가 아니라 명빈방의 절수지라는 사실이다(永作宮屯의 有土).[23] 문제는 17세기 제도면 주민들이 궁방의 힘을 빌어 개간한 후 소유권 문제가 애매하게 되었던, 개간 초기의 과도기적 상황을 배경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인용문 B)에서는 제도면 개간지에 대한 소유권과 도조 수준을 둘러싸고 민진원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후 사태는 민진원의 주장에 따라 제도면 일대가 명빈방장토로 판결되고 을해정식에 따라 결당 조 200두의

21) 『版籍司辛丑謄錄』경종 원년 1월 28일.

22) 김경옥, 앞의 논문(2000), 63~64쪽에서 재인용.

23) 유사한 인용문이 있다. "좌부승지 金在魯가 이르기를, 신이 작년에 명을 받들어 호남에 갔을 때, 백성의 억울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장흥땅 平日島, 山日島, 來德島, 得良島 등지의 도서와 眞木里 등지는 모두 嫔濱房의 折受地입니다. 그러나 이 섬들은 근 100여 년간 인근 유이민들이 들어와서 힘을 모아 개간하였고, 그 토지가 세습되거나 혹은 매매되어 상호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於義宮이 차지하였다가 지금은 명빈방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版籍司辛丑謄錄』 경종 원년 1월 28일.

도조가 관철되었다. 이 200두 도조의 인상과정이 얼마나 격렬한 투쟁이었는지는 1784년 『비변사등록』의 한 기사가 저간의 사정을 말해 주고 있다.[24] 도장(導掌)의 부당한 수취에 저항하다 비명에 죽은 자가 네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장흥부 제도면 양안은 내덕도, 평일도, 생일도, 덕우도 등 도서지역(奎18639, 奎25205)과 선자도, 진목리(가옥리 포함), 득량도 등 연안지역(奎18637)으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25] 이 양안은 1846년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써 장흥부에서는 내륙의 육답양안(陸畓量案)과 별도로 작성되었다.[26] 제도면 양안은 같은 해 작성된 별도의 수세 장부로 인해 그 신빙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27] 『제도전답실총(諸島田畓實摠)』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제도양안과 똑같은 편제로 각 지역별 원전답의 결수, 신기전답의 결수, 각 도서의 결당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과 제도양안에 수록된 각 도서의 "도이상(都已上)"조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장흥부 제도양안 체계

『諸島量案』"都已上"	『諸島田畓實摠』
來德島 合已上 田畓 64-64-9속	來德島 元結 41結 39負 2束
舊陳 전답 15-25-7속 (23.6%)	新起 8結 (16.2%)
起 전답 49-39-2속	合 49結 39負 2束
平日島 合已上 田畓 109-22-1속	平日島 元結 95結 47負 5束
舊陳 전답 3-70-6속 (3.4%)	新起 10結 4負 (9.5%)
起 전답 105-51-5속	合 105結 51負 5束
山日島 合已上 田畓 35-92-9속	山日島 元結 28結 10負 1束
舊陳 전답 2-92-5속 (8.1%)	新起 4結 90負 3束 (14.9%)

24) "且島民 以此呈訴 擧被導掌之構陷 因爲致死者 至於四人之多 前後文券 亦被奪去燒火 豈不滿萬冤抑." 『備邊司謄錄』 正祖8년 戊辰 10월 1일.

25) 표제명은 다음과 같다. 奎18637 및 奎18639는 『全羅道長興府所在諸島田畓量案』, 奎25202는 『全羅南道長興府量案』. 이하에서는 이를 "장흥부제도양안"(이하 "제도양안"으로 약칭)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내덕도 德山坪 厥字 1번 起 란에 "嬪濱房庫舍"가 나타나고, 양안 말미 都已上조 뒤에 다음과 같은 장흥부사의 手決이 있다. "通訓大夫行 長興都護府使兼 長興鎭兵馬僉節制使 臣 趙然明, 嘉義大夫行 龍驤衛護軍知敦寧 臣 吳膺善."

26) 장흥부 陸畓量案의 공식 표제명은 『全羅道長興府所在陸畓量案』(奎18638, 奎18640, 18641)이며, 동 行審冊의 그것은 『全羅道長興府所在丙午陸畓行審謄書』(奎18917)이다. 전자는 1846년, 후자는 1850년에 각각 작성되었는데 모두 장흥부 소재 龍洞宮 소속 田畓에 대한 양안이다.

27) 표제명은 『道光二十六年丙午五月日全羅道長興府所在來德島等島收稅結摠成冊』이다(原題 『諸島田畓實摠』(奎18562), 이하 『전답실총』으로 약칭).

起 전답 33-00-4속	合 33結 4束
德牛島 合已上 田畓 1-43-4속	德牛島 元結 1結 43負 4束
起 전답 1-43-4속	
得良島 合已上 田畓 36-76-0속	得良島 元結 7結 88負 3束
舊陳 전답 27-57-7속 (75.0%)	新起 1結 30負 (14.2%)
起 전답 9-18-3속	合 9結 18負 3束
眞木里 合已上 田畓 50-58-0속	眞木・加玉 元結 24結 63負
舊陳 전답 23-92-3속 (47.3%)	新起 2結 2負 7束 (7.6%)
起 전답 26-65-7속	合 26結 65負 7束
	以上 每結 28兩 3錢 5分式 (결당 租 200斗)
扇子島 合已上 田畓 91-65-0속	扇子島 元結 47結 84負
舊陳 전답 43-40-8속 (47.4%)	新起 40負 2束 (0.8%)
起 전답 48-24-2속	合 48結 24負 2束
	每結 14兩 5錢 4分式 (결당 租 100斗)
都已上 田畓 390-22-3속	以上 元結 246結 75負 5束
舊陳 전답 116-79-6속 (29.9%)	新起 26結 67負 2束 (9.8%)
起 전답 273-42-7속	都合 273結 42負 7束

자료 : 제도양안은 『全羅道長興府所在諸島田畓量案』(奎18637, 奎18639), 『全羅南道長興府量案』(奎25202), 수세성책은 『道光二十六年丙午五月日全羅道長興府所在來德島等島收稅結摠成冊』(原題 『諸島田畓實摠』(奎18562)).

주 : ① 제도양안의 "都已上"은 내덕도, 평일도, 산일도, 덕우도의 4개 도서와, 선자도, 진목리, 득량도의 3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기재되어 있다.

② 제도양안에서 "진목리"는 加玉 지구를 포함함.

③ 위 사료 상의 "山日島"는 "생일도"로 읽는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각 지역별 '기경지'의 총합이 양 자료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장흥부 제도양안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진전을 파악하고 신전을 사출하여 수세지를 확보하려는 개양전(改量田)의 모습에 다름 아니었다.[28] 이는 마치 향리들이 매년 수세과정에서 행하는 행심(行審)과 유사한 것이다.[29] 제도양안은 명빈방장토의 깃기, 추수기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답실총에 기재된 결세(結稅) 수준은, 전술한 을해정식(영작궁둔례)에 따라 매 결당 조 200두의 도조가 부과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단, 선자도(결당 조 100두)는 예외).

28) 茶山硏究會, 『譯註牧民心書II』제6부 戶典 六條, 183쪽.

29) 장흥부 陸畓量案 체계에서 量案(奎18638, 奎18640, 18641)과 行審冊(奎18917)을 구분하지 않고 混稱하고 있음은 개양전의 성격이 수세지 조사과정으로 단순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양안』은 진전(陳田) 실태, 『전답실총』은 신기(新起)상황을 각각 표기하고 있다. 장흥부 제도면의 진전 비율은 평균 29.9%, 신전 비율은 평균 9.8%이며 각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양자 간에는 '약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내덕도, 생일도(산일도)의 경우 진전 비율은 평균보다 낮고 신기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진목리, 선자도의 경우 그 역의 현상이 성립한다. 단, 평일도, 득량도 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자 간에 유의할만한 역의 상관이 존재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신기 비율이 결세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단순한 '계수조정'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30] 즉, 이는 단순히 진전을 메꾸기 위해 신전을 조작하거나 과장된 진전을 산입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각 지역별로 진전 비중과는 무관한 실제적인 개간활동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서의 "신기" 비중이 실제 개간전뿐 아니라 수세지에서 탈루된 은루지 사출분도 포함하고 있음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장흥부 제도양안의 지역별 개황표

島 名	坪 名 (字號)	筆地數	結負數
來德島 (3坪,11字)	德山坪(色,貽,厥), 北邊里坪(嘉,默), 大坪里坪(勉,其,抵,植,省,躬)	1,125	64-18-1
平日島 (5坪,5字)	西松浦坪(躬), □□□(□), 月松亭坪(誠), 尺峙坪(寵), 都藏浦坪(增)	3,245	103-14-0
山日島 (1坪,3字)	可也目坪(抗,極,殆)	1,023	35-79-4
德牛島 (1坪,1字)	蘭蔬坪(如)	337	1-38-3
扇子島 (8坪,19字)	加玉坪(丁), 門坪(俊), 馬場坪(父,密,勿,多,士), 豆音島坪(是,寧), 會寧浦坪(晉,楚,更,覇,趙), 扇子島坪(困,道,滅), 連登坪(橫), 內洞坪(假)	2,262	88-45-5
眞木里 (10坪,16字)	巷仇味坪(號), 朔仇味坪(踐,土,會,盟), 檢洞坪(何), 傷底坪(導), 上基坪(約), 沒揖端坪(法), 日亭仇味坪(韓), 眞木里	1,138	48-08-5

30) 『諸島量案』상의 진절율이 結稅比摠制 하에서 장부상의 단순한 계수조정을 의미한다면, 일반적으로 진전 비율이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은 결세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신기" 비중이 높아야 하고, 진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이 때문에 "신기" 비중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같은 정의 상관관계는 평일도와 득량도에서만 나타나는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선후기 田稅比摠制에 대해서는 李哲成, 「18世紀 田稅 比摠制의 實施와 그 性格」, 『韓國史硏究』, 81집 (1993) 참조.

	坪(弊,煩,魏), 加玉峙坪(形), 場內坪(起,剪)		
得良島 (5坪,7字)	官廳仇味坪(興,溫), 島宿坪(淸), 松光仇味坪(似), 船倉坪(蘭), 立巖坪(斯,響)	585	36-55-8
計	33個坪 (62字號)	9,715	377-59-6

자료 : 『全羅道長興府所在諸島田畓量案』(奎18637, 奎18639); 『全羅南道長興府量案』(奎25202).

<표 3>은 자료 상의 기재 순으로 작성된 지역별 개황표이다. 일반적으로 양전의 단위가 되는 "평(坪)"은 마을의 실제 명칭은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자연동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제도양안에서는 자연지리적 조건 때문에 "1자5결(1字5結)"의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웠다. 이는 비단 이 지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었으며 전라도 여타 육답양안에서도 그러했다. 제도면 양안은 여타 육답양안에 비해 평수는 비슷한 수준이나 자호수는 극히 작고, 지번수는 대단히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평일도과 생일도의 경우 당해 결부수에 비해 평수(坪數), 자호수(字號數)가 적어 특정 자호에서는 지번이 1,000번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민전(民田) 추수기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분석 결과, 실제 집계된 결총(結總, 377-59-6속)과 전술한 "도이상"의 수치(390-22-3속)는 오차범위 3.2%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전술한 <그림 1>의 회령포진은 <표 3>에서 선자도에 포함되어 있다. 선자도 일대는 연안지역의 중심지대로서 진목리 일대와 함께 회령포(=회진리)를 중심으로 가옥치(=가학)와 선자도 일부 지역을 공유하고 있다. 회령포평에서 남향으로 2리 지점에 곶(串)을 이루고 있는 진목리 일대가 실제의 선자도이다. 실제 섬은 아니며 진목리, 가학리를 회진리와 공유하며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31] 이 지역의 개간은 제도양안이 작성된 19세기 중반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 회령포진의 동쪽 2리에 위치하는 내덕도는 전술한 석교(石橋)에 의해 서부 회령포진 및 북부 연안지역과 연륙되어 있었다. 선자도에 비하면 개간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다.

한편, 평일도는 제도면 도서지구의 중심지대였다. 『호수총수』(1789) 단계에서 이미 8개의 큰 마을이 확인되는데, <표 3>의 평명(坪名)과 대체로 일치한다.[32] 평일도는 도서지역 가운데 수도작이 상대적으로 발달하고 개간도 비교적 이른 시

31) 『마을由來誌』(장흥군, 1986), 196, 517~539쪽 참조.

32) 李海濬, 「長興郡의 沿革」, 『長興郡의 文化遺蹟』(國立木浦大學校博物館, 1989), 22, 24~26쪽.

기부터 진행되었다. 생일도(산일도)와 이에 부속하는 덕우도는 양안 상에서 보는 '평명'을 상고하기 어렵다.[33] 득량도는 육지면인 회령면(현 보성군 회천면)에 부속되어 있었다. 『대동여지도』(1861) 상에서 생일도는 평일도와 마찬가지로 송봉산(松封山), 득량도는 내덕도와 함께 목장(牧場)이 설치되어 있었지만,[34] 전술한 『전답실총』을 감안할 때 이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개간활동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생각된다.

Ⅳ. 제도면 경지의 陳田·新田開墾 실태

19세기 중반 장흥부 제도면 일대는 자연지리적 조건상 연안지역과 도서지역로 이분되는데, 이같은 구분은 후일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어졌다. 1895년 완도군의 창설과 함께 연안지역은 장흥군으로, 도서지역은 완도군으로 이속되었다. 합방 직후 전남 도서지역에 대한 한 조사는 이 일대의 경제환경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35] 전남 육지의 경우 총호수 208,979호 가운데 농업종사자 호수는 187,510호로 89.7%를 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남 도서지역의 경우 총호수 60,579호 가운데 영농호수는 40,448호(66.8%)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더라도 육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제도면의 도서지역이 포함된 완도군은 총호수 가운데 영농자 비율이 76.3%로써 전남 도서지역 전체(66.8%)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농업외 종사자는 어업을 주업이나 겸·부업의 형태로 영위하였다.[36]

이같은 거시적인 지표들은 장흥부 제도면 도서지역에 대한 1910년 조선총독부의 조사자료와도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이 글에서 다루는 평일도의 경우 "주민들은 농사를 주로 하고 어로를 생업으로 하는 자는 극히 적으며, 섬 전체를 통해 어선은 25척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37] 이같은 상황은 산간 구릉지가 많아 그 수준

33) 『島嶼文化』, 제22집, <기획: 완도군 생일도 공동 연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3 참조.
34) 長興文化院, 앞의 책, 130쪽.
35) 일본헌병대조사에서 다루어진 지역은 突山郡, 莞島郡, 珍島郡, 智島郡, 濟州郡, 大靜郡, 旌義郡 등 6개군이다. 朝鮮駐箚憲兵隊司令部(編), 『全羅南道海岸竝島嶼の狀況』(1911), 부표 제12, 제13, 제15, 제17, 11~19쪽.
36) 평일도에 대해서는 조경만, 「금일지역 어민들의 생업과 공동체」, 『島嶼文化』, 10집(1992); 생일도에 대해서는 김준, 「근대어업 형성과 공동어장의 변용」, 『島嶼文化』, 22집(2003) 참조.

을 달리할 뿐 생일도(덕우도 포함) 및 득량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38] 1910년 현재 완도군 전체 전업 어업 호수(戶數)는 전체 9,643호의 7.5%에 불과하였다고 하니, 대다수의 도서민은 전작(田作) 농민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단, 여기에는 '해녀'라는 여성 어업참가자의 수치가 제외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39] 이하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서 제도면의 경지실태를 연안지역과 도서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장흥부 제도면 지목구성 (단위 : 結-負-束, %)

지역별		전		답		계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도서지역	평일도	2,169	71-97-9 (69.8)	1,076	31-16-1 (30.2)	3,245	103-14-0 (100.0)
	생일도	797	32-25-6 (90.0)	226	3-53-8 (10.0)	1,023	35-79-4 (100.0)
	덕우도	254	1-22-1 (88.3)	83	16-2 (11.7)	337	1-38-3 (100.0)
	득량도	459	34-39-4 (94.1)	126	2-16-4 (5.9)	585	36-55-8 (100.0)
	소계	3,679	139-85-0 (79.1)	1,511	37-02-5 (20.9)	5,190	176-87-5 (100.0)
연안지역	선자도	1,276	64-65-6 (73.1)	986	23-79-9 (26.9)	2,262	88-45-5 (100.0)
	진목리	647	29-58-6 (61.5)	491	18-49-9 (38.5)	1,138	48-08-5 (100.0)
	내덕도	670	42-19-5 (65.7)	455	21-98-6 (34.3)	1,125	64-18-1 (100.0)
	소계	2,593	136-43-7 (68.0)	1,932	64-28-4 (32.0)	4,525	200-72-1 (100.0)
합계		6,272	276-28-7 (73.2)	3,443	101-30-9 (26.8)	9,715	377-59-6 (100.0)

제도면의 전답구성은 <표 4>의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총 377결 59부 6속 가운데 전 73.2%, 답 26.8%로서 전작이 중심이었다. 이는 산간전작지대와 유사한 지목구성이다. 이같은 경향은 도서지역에서 보다 두드러지고 있었다. 전의 비율은 도서지역이 약 90%, 연안지역이 60~70% 대이다. 단, 도서지역의 평일도는 이례적으

37) 朝鮮總督府農商工部編, 『韓國水産誌(第三輯)』(1910), 232, 247~248쪽.
38) 위의 책, 244, 249~251쪽. 금당도는 평일도와 보다 유사하다. 245쪽.
39) 고광민, 앞의 논문 참조.

로 답의 비율이 30.2%에 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에서 벼가 여타 밭작물에 비해 생산성이 2배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부 도서지역에서 신전개간이 인구유입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저간의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제도면 경지의 진폐(陳廢) 상황은 전술한 <표 2>에서 본 진전(陳田) 비율 29.9%였다. 이를 연안·도서 지역별로 나누어 집계한 것이 <표 5>이다. 진전의 비중은 연안지역이 도서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37.6%>19.1%), 양 지역 공히 진전이 주로 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양 지역 모두 답에서의 기경(起耕)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지역의 전에서 진전 비율(52.4%)은 도서지역의 그것(23.8%)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지역적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표 5> 제도면의 전답별 진기(陳起)구성 (단위 : 結-負-束, %)

陳起別	연 안 지 역			도 서 지 역		
	전	답	계	전	답	계
起	64-98-0 (47.6)	60-28-0 (93.8)	125-26-0 (62.4)	106-50-0 (76.2)	36-50-2 (98.6)	143-00-2 (80.9)
舊陳	71-45-7 (52.4)	4-00-4 (6.2)	75-46-1 (37.6)	33-35-0 (23.8)	52-3 (1.4)	33-87-3 (19.1)
계	136-43-7 (100.0)	64-28-4 (100.0)	200-72-1 (100.0)	139-85-0 (100.0)	37-02-5 (100.0)	176-87-5 (100.0)

주 : 연안지역 가운데 선자도의 "今陳" 17부 3속(3필지)과 "續陳" 26부 6속(3필지)은 "구진"에 포함.

전술한 <표 2>에 따르면 진전의 비중이 높은 이 지역은 진목리(47.3%)와 선자도(47.4%)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단, 도서지역에서 이례적으로 득량도의 진전 비율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75.0%). 여기서의 진전은 영구진전의 무주지 규정을 받는 "구진(舊陳)"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이같은 경지의 진폐 상황은 '소유'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무주지는 도서지역 19.1%, 연안지역 38.5%로 나타나고 있다. "구진"이 많은 연안지역의 전에서 주로 무주지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제도면에서의 진전 비중이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약 30%에 이르는 제도면의 진전비율은 당시 전라도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다음의 <표 6>은 전술한 <표 1>의 전라우도(全羅右道) 진도군(珍島郡) 제도면(諸島面)에 부속한 가사도(加士島)의 사례이고, <표 7>은 영광군(靈光郡) 서부면(西部面)의 사례이다.[40] 두 지

역 공히 19세기 후반의 것으로서 1846년 장흥과의 비교를 위한 호사례이다.

<표 6> 진도군 제도면 가사도의 전답별 진기구성(1871년) (단위 : 結-負-束, %)

陳起別	전	답	대	계
起	20-53-0 (64.9)	10-00-5 (91.8)	1-95-7 (97.8)	32-49-2 (73.0)
舊陳	7-15-1 (22.6)	68-2 (6.3)		7-83-3 (17.6)
今陳	3-95-9 (12.5)	20-6 (1.9)	4-5 (2.2)	4-21-0 (9.4)
계	31-64-0 (100.0)	10-89-3 (100.0)	2-00-2 (100.0)	44-53-5 (100.0)

자료 : 『諸島面加士島行審』(奎18999)

<표 7> 영광군 서부면의 지목별 진기구성(1868년) (단위 : 結-負-束, %)

陳起別	전	답	대	계
起	88-68-8 (34.6)	264-69-2 (84.7)	9-72-2 (100.0)	363-10-2 (62.8)
舊陳	149-19-7 (58.3)	10-06-5 (3.2)		159-26-2 (27.5)
今陳	18-14-1 (7.1)	37-66-4 (12.1)		55-80-5 (9.7)
계	256-02-6 (100.0)	312-42-1 (100.0)	9-72-2 (100.0)	578-16-9 (100.0)

자료 : 『全羅道靈光郡西部面改量案』(奎25036)

진도군 제도면 가사도의 경우 "구진(전)"의 비중은 17.6%로서 장흥부 제도면 도서지역의 그것(19.1%)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전에서의 구진 비율은 22.6%로서 장흥 도서지역의 전에서의 구진 비율 23.8%와 유사한 수준이다. 여기서는 금진(今陳)[41] 비율이 12.5%로서 이를 포함한 진결(陳結=舊陳+今陳)은 결총(44-53-5속)의 27.0%를 점하기에 이른다. 한편, 장흥 연안지역에서 전의 구진 비율(52.4%)은 <표 7> 상의 영광군 서부면의 그것(58.3%)과 비슷한 수준이며, 그 패턴도 유사하다. 서부면에서는 전에서의 금진 비율도 7.1%에 이르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다면 장흥부 제도면에서의 진전 비중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흥

40) 鄭勝振, 앞의 논문, <표 7> 및 <표 10> 참조.

41) 今陳이란 1년이나 2년의 단기간 동안 경작되지 않고 묵은 경지를 일컫는다.

부 제도면에서의 진전문제는 한발, 수리문제 등 경지황폐화를 유발하는 일반적 재해뿐 아니라,[42] 풍해(風害) 및 해일(海溢)이라는 자연지리적 특성과 신규 개간전에서의 지반침하, 산곡간에서의 사태(沙汰) 등에 기인했다.[43] 그러나 이같은 자연재해로 제도면의 높은 진전비중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진전의 발생을 둘러싸고 은루결(隱漏結)이라는 전정문란(田政紊亂)의 사회적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44]

다음의 <표 8>은 전술한 <표 5>에서 기경(起耕) 전답만을 등급별로 정리한 것이다. 구진전(舊陳田)은 무주지로서 모두 면세였다. 연안지역은 125-26-0속, 도서지역은 143-00-2속이다. 연안지역을 보면 기경전에서는 5등급, 기경답에서는 3~4등급이 경지등급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기경전에서는 6등급, 기경답에서는 5등급이 중심등급이었다. 연안지역은 도서지역에 비해 전품(田品)이 한 등급씩 높으며, 따라서 도서지역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토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8> 기경지(起耕地)의 전답별 등급구성 (단위 : 結-負-束)

등급별	연안지역		도서지역	
	起耕田	起耕畓	起耕田	起耕畓
1등급	5-2	12-2		
2등급	86-7	2-64-0	15-7	4-0
3등급	12-72-2	21-23-7	7-47-9	4-56-9
4등급	19-94-9	21-76-0	17-01-2	8-01-8
5등급	25-67-6	12-79-7	27-87-9	23-07-6
6등급	5-71-4	1-72-4	53-97-3	79-9
계	64-98-0	60-28-0	106-50-0	36-50-2

장흥 도서지역의 등급구성은 진도군 가사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사도에서도 기경전에서는 6등급, 기경답에서는 5등급이 전품의 수위를 점하고 있

42) 鄭勝振, 『韓國近世地域經濟史: 全羅道 靈光郡 一帶의 事例』(景仁文化社, 2003), 52~59쪽 참조.

43) 박영한·오상학, 『조선시대 간척지 개발』(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조선후기의 간척 유형은 해안형, 하안형, 도서형으로 3분 되는데(55쪽), 해안·도서지역의 경우 風害, 海溢, 鹽害 등이 주로 보고되었다(76쪽, 117쪽).

44) 量田時 隱漏結이라는 田政紊亂 현상에 대해서는 金容燮, 『(增補版)朝鮮後期農業史硏究 II』(一潮閣, 1990);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참조.

었다.[45] 한편, 영광군 서부면의 경우 기경전에서는 4등급, 기경답에서는 3등급이 중심 등급으로서 장흥 사례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46] 이는 장흥의 척박한 토질, 농업환경에 기인한다. 제도면은 주로 전에서 진전이 확인되고 그것이 주로 하등지였다는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농업황폐화를 저지하려는 활발한 신전개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도면에서 약 10%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개간 비율은 경지황폐화를 저지하고 농지개발, 농업발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연안 도서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면에서는 산간구릉의 개간과 연안 간척의 제유형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해당 양안 상에는 입전(入田), 번답(反畓), 해택(海澤開墾), 가입(家入)이라 하여 당해 필지의 구체적인 개간 실태를 말해주고 있다. "입전"이란 황무지를 전(田)으로 전환하는 산지 개간의 주요한 유형이다. "번답"은 전에서 답으로 지목변경하는 것, "해택"은 해택개간(海澤開墾)[47]의 준말로서 수심이 얕은 연·해변에 제방·제언을 쌓아 간척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간된 논을 언답(堰畓)이라 한다.[48] 진도군『가사도행심』에서는 해답(海畓)이라 별칭하였다. "가입"은 전(田)에서 대지(垈地)로의 전용 상태를 이른다. 제도면 양안에서는 전과 대지를 별도의 지목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평일도, 생일도에서는 인근의 금당도와 마찬가지로 봉산(封山) 규정이 명시되고 있었다.

---

45) <표> 진도군 제도면 가사도의 지목별 등급구성(1871년) (단위 : 結-負-束, %)

등급별	田	畓	垈	계
1				
2		1-3		1-3 (0.0)
3	79-2	82-8	1-18-6	2-80-6 (6.3)
4	1-80-4	1-29-1	49-6	3-59-1 (8.1)
5	14-18-7	6-54-7	31-7	21-05-1 (47.3)
6	14-85-7	2-21-4	3	17-07-4 (38.3)
계	31-64-0	10-89-3	2-00-2	44-53-5 (100.0)

46) 鄭勝振, 앞의 논문, <표 11> 참조.

47) 海澤開墾의 용례는 이경식, 앞의 논문(1973), 95쪽; 李泰鎭,「16세기 沿海지역의 堰田 개발」,『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1989), 424쪽 참조. 이는 나주목 비금도에서도 확인된다. 金京玉,「朝鮮後期 羅州牧 飛禽島 住民들의 土地運營 실태」,『島嶼文化』, 19(2002), 66쪽 참조.

48) 堰畓은 沿岸 및 河岸의 沮洳地 개간을 통해 확보된 논으로서, 일반적인 하안 제언답인 垌畓과 구별하는 용례가 있다. 송찬섭, 앞의 논문(1985), 248~249쪽 참조.

<표 9> 장흥부 제도면의 개간 실태 (1846년) (단위 : 筆地數, 結負束)

島別	入田	反畓	海澤	家入	等級"降"	"降"小計	封山
扇子島		111(5) 1-73-0	31 1-20-4	1(1) 2-4		(6)	
來德島		90(53) 2-38-9	10 20-6	21(3) 46-8	(5)	(61)	
眞木里		150(23) 2-50-3	32(1) 1-69-7	39(12) 1-13-5	(18)	(54)	
平日島	55 1-34-0	15 76-9	13 40-5	148(26) 2-78-1	(48)	(74)	松封山
山日島				111 1-61-5			松封山
德牛島				25 5-4			
得良島		115 1-90-2		20 53-5			
合計	55 1-34-0	481(81) 9-29-3	86(1) 3-51-2	365(42) 6-61-2	(71)	(195)	

주 : "번답·해택"은 "번답"에 포함(선자도 1필지, 진목리 2필지), 괄호 안의 수치는 양안 상 등급 앞에 "降"으로 표기된 것.

<표 9>는 구진 무주지를 제외하고 기경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술한 <표 2>와 비교하면, 『전답실총』상에서 집계되었던 지역별 신전비율와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있다. 가령 <표 2>에서 신기(新起) 비율이 면평균(9.8%)을 상회하는 지역은 내덕도(16.2%), 생일도(14.9%), 득량도(14.2%)의 3개 도서였지만, <표 9>상의 해당 기록은 상당히 적다는 자료상의 한계가 존재한다.[49] 따라서 이하에서는 <표 2>의 지역별 개간 상황에 유의하면서 오히려 개간의 구체적 실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안지역인 선자도, 내덕도, 진목리에서는 "번답", "해택", "가입"이 빈출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번답화라는 농업발전의 뚜렷한 경향이 확인되고, 특히 연안 저습지를 중심으로 해답 간척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령포

49) 한 가지 가능한 추정은 실제 개간상황과 기록 상의 차이를 고려해 보는 것이다. 1846년 개양전 당시까지 실제 경작되고 있었지만 양안 상에는 기경지로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 개양전에 즈음하여 기경지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개양전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표 9>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개간활동은 없었지만, 收稅地로서 양안 상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양안분석을 통해 순수한 의미의 개간전과 이러한 '신전 추가분'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사용되는 신전개간은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진의 중심지역인 이 일대는 “가입”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인구증가도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현상은 도서지역의 중심인 평일도에서도 확인된다. <표 9>에서 보듯이, 가장 활발한 개간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평일도에서는 산간·구릉의 개간활동인 “입전”도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해서 확보된 밭이 도서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식 ‘자갈밭’이다. 한편, 수원(水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산곡간(山谷間)에서는 번답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표 9> 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입전”이 “번답”, “해택” 개간분보다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제도양안』이 작성된 1846년 시점에서 산간구릉에서의 개간활동은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였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제도면의 개간·간척 활동은 연안지역(내덕도, 선자도, 진목리)이 도서지역(평일도, 산일도, 덕우도)보다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며, 주로 해택개간과 인구증가가 전자에서 후자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양안 상에는 등급“강”(等級“降”)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한다. 개간·간척지에 대해 해당 필지의 등급을 내려 감세하는 조치였다. 이는 개간·간척 활동에 대한 중요한 인센티브였다. 양안에서는 “번답”, “해택”, “가입”이 이루어진 해당 필지에 등급“강”이 표기되기도 했는데, <표 9>의 말미에서는 이를 필지별(등급“강”)로 또 “강”소계로 집계하였다. 이 가운데 내덕도와 진목리에서는 특히 “번답지”에 대해 등급“강”의 표기가 빈출하고 있었다. 특히 회령포진이 소재하는 진목리에서는 가입전(家入田)에 대해서도 감세 조치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도서지역의 중심인 평일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개간 필지에 대해 결세 등급을 내려 감세하는 조치는 진도군 가사도 해답(海畓) 개간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면의 도서지역은 가사도와 마찬가지로 경지의 중심 등급이 5등급 또는 6등급일 정도로 척박한 하등지였다.

<표 10> 진도군 제도면 가사도 해답(海畓)의 진기별 등급구성

등급별	起	舊陳	今陳	계
4등급	27-0			27-0
5등급	1-59-5	1-6	11-4	1-72-5
6등급	61-0	64-1	3-7	1-28-8
계	2-47-5	65-7	15-1	3-28-3

자료 :『諸島面加士島行審』(奎18999).

<표 10>은 가사도의 "해답" 필지만을 집계한 것이다. 가사도 "해답" 93필지, 3-28-3속은 답총(畓摠) 508필지, 10-89-3속의 30.1%에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한 면적이었다. 여기에서도 상등지(1,2,3등급)는 전무한 상황이다. 결세 등급에 주목하면, 개간 "해답"은 주로 5등급, 6등급의 하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개간 경작자의 결세(도조) 부담을 낮추는 유인책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개간활동의 주체는 소농민이었다. 전술한 <표 9>에서 개간의 절대면적이 높게 나타나는 3개 지역에서 그 실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자도에서 1결(結) 이상층(5인)이 번답·해택 개간을 행한 경우는 3필지에 불과하다. 75부(負) 이상을 상층으로 잡더라도 11필지에 불과하다. 같은 연안지역에 속하는 내덕도의 경우 1결 이상층뿐 아니라 75부 이상층도 전무한 상태였으며, 50부 이상층(12인)을 상층으로 간주하더라도 "번답·해택" 개간을 행한 경우는 도합 9인, 19필지에 불과했다. 결국 이 두 지구는 농민 상층, 부농층에 의한 개간이 부진하고 유이민 출신의 영세한 소농민이 개간의 주체임을 말해주고 있다.

개간 활동이 활발한 진목리에서는 1결 이상층(3인)은 36필지에서, 또 50~100부층(8인)에서는 44필지가 확인되고 있다. 이 두 계층에서 번답·해택이 이루어진 80필지는 진목리 총 개간필지수 182필지의 44.0%에 해당한다. 이는 인근의 선자도나 내덕도와 달리 상층농, 부농경영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진목리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도서지역인 득량도를 보면, 여기서는 50부 이상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층 부농경영이 미발달한 지역이었다. 개간은 여타 도서와 마찬가지로 영세 소농에 의해 이루어진 듯 하다. 다만, "번답"이 행해진 115필지 가운데 10인의 30부 이상층이 42필지에서 검출(36.5%)되고 있으나, 표본 규모가 작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체로 영세 소농이 개간의 주체였던 것으로 보아 제도면 일대는 '지주제'의 미발달을 배경으로 명빈방이 사적 지주로서 하층의 유이민을 모집해 절수, 개간을 행한 역사적 배경이 깊게 남아 있다.

제도면 일대는 원래 사복시(司僕寺) 목둔(牧屯)에서 출발해 훈련도감, 어의궁을 거쳐 명빈방으로 이속된 절수지였다. 역사적으로 이 일대의 개간활동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는 목장(牧場) 개간과 봉산(封山) 개간이었다. 이 일대는 조선초 사복시 목장이었다가 해당 둔전의 이속과정에서 개간되면서 폐지된 듯하다.[50] 후대의 『호

남고지도』에서 내덕도와 득량도에 목장이 표기되어 있다. 목장개간은 봉산개간보다 더 오래된 개간 유형으로서 그 구체적인 실상은 상고하기 어렵다. 한편, 평일도와 생일도는 봉산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봉산개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평일도 인근의 금당도의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51] 18세기 중반 양향청의 군둔전(軍屯田)인 금당도는 1761년 봉산으로 규정되었지만 개설된 지 7년만에 개간이 허용되었다. 제도면 도서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입전"이나 "가입"은 이같은 목장·봉산 개간을 선행과정으로 두고 이루어진 산간구릉지대에서의 개간활동이었다.

제도면 신전개간의 역사적 의의는 19세기 중반 이 지역에 대한 읍양전 사업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 시기의 개양전(改量田)은 진전(陳田)을 조사하고 신전(新田)과 은루지(隱漏地)를 사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여기서 확인된 개간의 전모는 대규모 진전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농민경영의 발전의 소산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구유입, 인구의 자연증가 등에 따라 농지개발, 농업개발의 변화된 양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제도면에서는 목장, 봉산 개간이 선행하고, 이후 1846년 개양전 시점에서 "입전"이라는 산지개간, "번답화", "해답" 간척에 이르는 개간의 제 유형이 나타나고 있었다.

V. 제도면 농민층의 경영실태: 영세 소농의 퇴적

장흥부 제도면 일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복시 목둔(牧屯), 훈련도감 군둔(軍屯)으로 성립하였다가 어의궁(於義宮)으로 이속되고 1699년 명빈방으로 재차 이속된 궁방전 장토이다. 1720년 호조의 판결에 따라 명빈방의 사적 소유지로 귀착되어 결(結)당 조(租) 200두(斗)의 도조를 수취하는 지대수취구조이다. 평일도(제도면 도서지역의 중심지) 인근의 금당도가 훈련도감의 군둔전으로 성립해 그 재정부서인 양향청(糧餉廳) 장토로 이속되었던 역사적 사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궁방전의 특징 때문에 여기서 고찰하는 농민들은 단순한 소작인이 아니며 사실상 자작농에 근접하는 소유 관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50) 장흥부 제도면 일대의 牧場開墾에 대해서는 김경옥, 앞의 논문(2000), 56쪽 참조.
51) 금당도의 封山開墾은 김경옥, 위의 논문, 32~33, 42쪽 참조.

17세기 이래 이들 간에 '소유권' 매매 관행, 명빈방과의 소유권 분쟁 등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장흥부 『제도양안』은 "주(主)"규정이 미성립한 단계의 양안이다. 여기서는 '소유자'란에 "기주(起主)"가 아니라 "기(起)"만이 등장한다. 경자양전 당시 전라좌도에서 "기주" 규정이 미성립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속한 장흥부도 마찬가지였다.[52] 이것은 "기주"(=소유자)로서 성장하지 못한 제도면 농민들의 애매한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 양명(量名) 기재방식은 다음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명(姓名) 3자, 명(名) 2자, 그리고 양자가 결합된 형태가 존재한다. 성명 3자의 형태는 압도적이며, 경자양안 단계에서 보는 구래의 노명(奴名) 방식이 극복되어 신분적으로 보다 평등한 성명 형태로의 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장흥 제도면 양안의 이름형태

이름형태	연안지역		도서지역	
	인 수	구성비	인 수	구성비
姓名3字	610	88.4	1,064	82.8
名2字	46	6.7	125	9.7
名字+姓名	33	4.8	96	7.5
기타	1	0.1	0	0.0
계	690	100.0	1,285	100.0

주 : 연안지역의 기타 1인은 관직명(嫫嬪房庫舍)

연안지역의 경우 각 지역 간에 동일 '소유자'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으나,[53] 도서지역 간에 동일 '소유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지구의 경우 연안지역보다 '소유자'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일차적으로 도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영세 소경영이 많았던 당연한 결과이다. 양 지역간 동일 '소유자'를 고려한 제도면의 총 '소유자'는 1,924명이다. 다음의 <표 12>는 무주지 100여 결을 제외하고 이들이 268-42-2속의 경지를 경영하고 있던

52) 李榮薰, 「量案 上 主 規定과 主名 記載方式의 推移」,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민음사, 1997) 135쪽. 여기에는 장흥부 제도면과 진도군 제도면의 양안을 동일한 양안으로 취급한 혼란상이 엿보인다. '1846년 제도면'은 장흥부, '1871년 제도면'은 진도군의 양안이다.

53) 연안지구의 소유자를 각 지구별로 검출하면, 선자도 278명, 진목리 177명, 내덕도 290명, 도합 745명이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지역을 합한 연안지구의 총 소유자는 690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각 섬간 동일 소유자가 50여 명 가량 존재함을 의미한다.

실태를 제시한 것이다.

<표 12> 장흥부 제도면의 경영실태(1846) (단위 : 人, 結-負-束, %)

구 간	인 수	면 적	평균경영면적
1結 이상	17(0.9)	22-88-5(8.5)	1-34-6
75~100負	27(1.4)	22-83-6(8.5)	84-6
50~75負	45(2.3)	27-00-0(10.1)	60-0
25~50負	244(12.7)	81-95-4(30.5)	33-6
25負 미만	1,591(82.7)	113-74-7(42.4)	7-1
계	1,924 (100.0)	268-42-2 (100.0)	13-9

주 : 무주지 109-17-4속(결총의 28.9%) 제외.

<표 12>를 통해 1846년 단계에서 계층별 경영형태를 보면, 경영 상층이 미발달한 가운데 영세 하층농이 두텁게 퇴적되어 있는 구조이다. 1결 이상층은 17인으로서 총 인원의 1% 미만, 22-88-5속(8.5%)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 50부 이상 1결 미만층을 보더라도 인수에서 5% 미만, 면적에서 20% 미만에 불과하다. 1결 이상층의 평균경영면적(1-34-6속)에서 보듯이 '지주제'가 미발달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18세기 전반 전술한 결당 조 100두에서 200두로의 도조(賭租) 인상은 이같은 '지주제'의 미발달을 배경으로 이루었졌던 것이다. 이는 『제도양안』이 사실상 명빈방이라는 궁방의 깃기(추수기)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한편, 25부 미만층은 1,591명으로 인수의 82.7%, 총 면적의 42.4%로서 작인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25-50부층도 30.5%의 토지를 경영하는 두터운 소농층을 형성하고 있다. 전술한 활발한 개간·간척 양상은 이들이 주체가 된 것이다. 제도면의 주류적 경영범주는 50부 미만의 영세 소농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족한 소득은 어업 등의 겸·부업으로 보완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면의 경영분화 양상도 <표 13>, <표 14>에서 보듯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표 13> 장흥부 연안지역(선자도, 진목리, 내덕도) 경영실태

구 간	인 수	면 적	평균소유면적
1結 이상	12(1.7)	15-74-5(12.5)	1-31-2
50~100負	37(5.4)	25-07-5(20.0)	67-8

25~50負	115(16.7)	38-34-3(30.6)	33-3
25負 미만	526(76.2)	46-25-7(36.9)	8-8
계	690(100.0)	125-42-0 (100.0)	18-2

주 : 무주지 75-30-1속(결총의 37.5%) 제외.

<표 14> 장흥부 도서지역(평일도, 생일도, 덕우도, 득량도) 경영실태

구 간	인 수	면 적	평균소유면적
1結 이상	4(0.3)	5-28-5(3.7)	1-32-1
50~100負	32(2.5)	22-29-2(15.6)	69-7
25~50負	134(10.4)	45-17-2(31.6)	33-7
25負 미만	1,115(86.8)	70-25-3(49.1)	6-3
계	1,285(100.0)	143-00-2(100.0)	11-1

주 : 무주지 33-87-3속(결총의 19.1%) 제외.

연안지역과 도서지역을 비교하면 대체로 도서지역에서 경영분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적 대비 1결 이상층은 연안지역이 12.5%로서 도서지역(3.7%)보다 높은 수준이며 50부 이상 1결 미만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50부 미만층을 보면 25부 이상 50부 미만층은 면적 대비 30% 대에서 비슷한 수준이지만 25부 미만층은 도서지역의 경우 49.1%로서 연안지역의 그것(36.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결국 영세 하층의 두퇴운 퇴적이라는 제도면에서의 경영분화 양상은 주로 도서지역에서 심화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제도면에서 도서지역과 연안지역 간의 경영분화 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경상도 남해군(南海郡) 용동궁장토(龍洞宮庄土)의 사례를 보면 그 특질이 선명하게 나타난다.[54] 비교의 대상인 남해군 용동궁장토는 장흥부 제도면 명빈방장토와 마찬가지로 남해 연안의 궁방전이다. 다음의 <표 15>는 해당 장토의 1845~1905년간 경영분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남해군 용동궁장토의 경우 1845년 시점에서 표본 면적이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1결 이상층은 인수나 경영규모 면에서 장흥부 제도면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하층농을 보더라도 제도면과 달리 25~50부층이 25부 미만층보다 상대적

54) 李榮薰, 「19세기 농민경영의 분화추세와 계층별 존재형태: 경상도 南海 龍洞宮庄土에 관한 사례분석」, 『한국의 사회와 문화』, 1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참조.

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1905년에 이르면 50부 이상의 상층은 그 면적 비중이 낮아지고, 반면 50부 미만의 하층에서 경영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5부 미만층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른바 '영세균등화'의 경영분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표 15> 남해군 용동궁장토 내 경영분화 추이(1845~1905)

구 간	1845년		1905년	
	인 수	면 적	인 수	면 적
1結 이상	15(6.1)	21-68-4(25.3)	5(1.3)	6-18-2(7.2)
75~100負	9(3.7)	8-13-6(9.5)	5(1.3)	4-43-4(5.2)
50~75負	21(8.5)	12-76-2(14.9)	18(4.5)	11-08-6(12.9)
25~50負	77(31.3)	27-35-8(32.0)	97(24.3)	33-30-8(38.8)
25負 미만	124(50.4)	15-66-9(18.3)	274(68.7)	30-91-1(36.0)
계	246(100.0)	85-60-9(100.0)	399(100.0)	85-92-1(100.0)

자료 : 李榮薰, 「19세기 농민경영의 분화추세와 계층별 존재형태: 경상도 南海 龍洞宮庄土에 관한 사례분석」, 『한국의 사회와 문화』, 1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300~302쪽에서 재작성.

장흥부 제도면 연안지역의 분화형태는 도서지역의 경우처럼 '하층영세화'로 이행하고 있었다. 즉, 상층이 소멸되고 하층이 투텁게 퇴적되는 분화구조이다. 장흥부 연안지역의 분화형태는 남해군 용동궁장토의 양 기간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며, 도서지역의 그것은 남해군 1905년의 형태보다도 하층농의 분해가 더욱 심화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의 진도군 가사도의 사례와 비교하면 장흥부 도서지역의 경영분화가 어느 정도 급속한 것이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다.

<표 16> 진도군 제도면 가사도 경영 실태(1871)

구 간	인 수	면 적	평균소유면적
1結 이상	4(2.2)	5-68-6(15.5)	1-42-1
75~100負	3(1.7)	2-55-1(7.0)	85-0
50~75負	9(4.9)	5-29-1(14.4)	58-8
25~50負	34(18.7)	12-78-6(34.8)	37-6
25負 미만	132(72.5)	10-37-9(28.3)	7-9
계	182(100.0)	36-69-3(100.0)	20-2

자료 :『諸島面加士島行審』(奎18999)

주 : 무주지 7-84-2속(결총의 17.6%) 제외.

진도군 가사도의 경영분화 상황은 남해군 용동궁장토의 1845년 단계의 분화 형태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결 이상층이 면적 대비 15.5%를 점하고 있으며, 25~50부층이 영세 하층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분화 상황은 장흥부 연안지역보다도 '하층영세화'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상태이며, 따라서 장흥부 제도지역에서 영세 하층이 어느 정도로 급속하게 분해되고 있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제도면의 농민층 분화는 인구증가로 인한 '하층영세화'의 경향을 타고 개간, 간척에 임했던 유이민 소농의 취약한 경영형태에 대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장흥부 도서지역에서 개간·간척 활동이 활발했던 사실은, 이 지역에서 개간의 여지가 주로 영세 하층농의 증가와 유입에 의해 조성되었고, 이같은 개간 활동이 영세 소농층의 존재에 중요한 계기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들은 산간 구릉의 계단식 밭, 산곡간의 계단식 논, 그리고 연해변의 간척논에 걸쳐서 집약적인 경영방식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하층농의 영세한 농업활동은 각종 어로 등의 겸부업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완함으로써 가능했다. 특히, 어업에서 여성노동력의 활용은 도서지역의 커다란 특징으로 확인되고 있다.[55]

전술한 바와 같이 도서지역은 전작이 중심이었고 일부 계단식 개간전과 연해에 간척답이 적지않게 존재하였다. 도서지역의 전작은 1인당 경작면적의 영세성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지편(地片)에 노동력의 과잉 투입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여성노동력까지 적극 활용하는 가족노동력의 '완전연소'가 연출되었다. 그러나 그것의 기술적 한계는 분명했다. 우경(牛耕)은 초지, 사료부족 때문에 극히 일부에 한정되었다. 밭에서는 보리, 녹두, 깨, 콩, 고구마 등의 재배를 위해 주로 밭쟁기(일명 홀찌기)가 사용되었으며, 보리, 고구마 파종시 밭을 일구는데는 따비가 사용되었다. 밭쟁기와 따비는 당시 연안·도서지역의 낮은 농경기술을 여과없이 반영하고 있다. 따비는 특히 자갈이 많은 밭에서 효과적이었는데, 아주 작은 지편에서 밭농사를 영위하는 도서지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56] 이같은 조악한 수준의 농경기술은 척박한 토지에서 진전을 방어하고 개간전을 개척해 혹심한 자연환경을

55) 장흥의 유학자 存齋 魏伯珪(1727~1798)의 「金塘島船遊記」條(『存齋全書』)에는 18세기에 이미 平日島에서 '무레꾼'(海女)들의 어로작업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고광민, 앞의 논문, 121~122쪽.
56) 곽유석, 앞의 논문 참조.

극복하려는 영세 소농의 끈질긴 생명력을 반영하고 있다.

Ⅵ. 맺음말

이상 19세기 중반 장흥부 제도양안을 통해 전라도 남해 연안·도서지역의 경지실태, 경영형태 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남해 연안·도서지역이 단순히 어촌일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이곳은 육지와 마찬가지로 농업이 주업을 이루고 어업이 겸·부업의 형태로 전자를 보완하는 농촌지역이었다. 이하에서는 경지실태, 경영실태의 두 레벨에서 이 글에서 분석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사례의 대상인 제도면(諸島面)은 장흥부 최남단에 위치하는 연안 저지대와 현재는 완도군에 이관된 도서지역으로 이분되어 있다. 한국 제1의 다우(多雨)지역으로 농업지대 구분상 다도해 연안도작지역에 속한다. 이 일대는 1720년 호조 판결에 따라 명빈방의 사적 소유지로 귀착된 영작궁둔의 궁방전이다. 17세기 이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다수의 집락이 형성되면서,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육지의 '행정면'과 같은 제도면이라는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등장하였다.

1846년 작성된 장흥부『제도면양안』은 명빈방장토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양안은 같은 해 작성된 별도의 수세 장부인『제도전답실총(諸島田畓實摠)』과 각 지역별 결수(結數)가 정확히 일치하며, 결세액도 을해정식에 따라 매 결당 조 200두의 도조가 부과된 상황과도 일치한다. 이는 제도면 양안이 사실상 명빈방장토의 깃기(=징세기), 추수기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1846년 제도면의 지목구성은 결총(結總) 377결 59부 6속 가운데 전 73.2%, 답 26.8%로서 전작이 중심이었다. 도서지역에서 전의 비율(약 90%)은 연안지역(60~7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도면 경지의 진전(陳田) 비율은 결총의 29.9%였다. 진전비중은 연안지역이 도서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37.6%>19.1%), 양지역 공히 주로 전(田)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지의 등급(田品)을 보면, 연안지역의 경우 기경전(起耕田)에서 5등급, 기경답(起耕畓)에서 4등급이 중심등급을 이루고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기경전에서는 6등급, 기경답에서는 5등급이

전품(田品)의 다수를 점해 연안지역에 비해 척박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제도면의 경지가 주로 하등전이었고 높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약 10%에 달하는 적지 않은 개간 비중은 경지황폐화를 저지하고 농지개발, 농업발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연안·도서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면에서는 입전(入田)이라하여 산간구릉의 개간, 수원(水源)이 있는 산곡간에서의 번답(反畓), 그리고 해택(海澤)이라하여 연안 간척의 제유형이 모두 확인되었다. 연안지역인 선자도, 내덕도, 진목리에서는 "번답화"라는 농업발전의 경향이 확인되고, 연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간척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회령포진의 중심지역인 이 일대와 도서지역의 중심인 평일도에서는 가입(家入)이 빈출했던 것으로 보아 인구증가도 많았던 모양이다. 도서지역에는 "입전"을 통한 "계단식 밭"과 "번답화"를 경과한 경지가 "계단식 논"으로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제도면 양안이 작성된 1846년 시점에서 산지개간은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였다. 대체로 제도면의 개간·간척 활동은 연안지역(내덕도, 선자도, 진목리)이 도서지역(평일도, 산일도, 덕우도)보다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며, 주로 해택 개간과 인구증가가 전자에서 후자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다고 추정된다.

장흥부 제도면의 경영실태를 보면, 양안에 등장하는 농민 총수는 1,924명이며, 이들이 무주지 100여 결을 제외한 268결 42부 2속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었다. 계층별 경영 실태를 보면, 경영 상층이 미발달한 가운데 영세 하층농이 두텁게 퇴적되어 있는 구조이다. 1결 이상층은 17인으로서 총 인원의 1% 미만, 22-88-5속(8.5%)을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한편, 개간의 주체는 50부(負) 미만의 소농민층이었다. 25부 미만층은 1,591명으로 인수의 82.7%, 면적의 42.4%로서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25~50부층도 30.5% 점유). 무엇보다 도서지역에서 '하층농의 퇴적'이 보다 심화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도서지역이 연안지역보다 개간의 여지가 더 많았고 개간 한계지의 존재가 영세 소농의 존재에 중요한 요인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들은 산간 구릉의 계단식 밭, 산곡간의 계단식 논, 그리고 방조제 안쪽의 간척논에 걸쳐 가족농 형태의 집약적 경영방식을 추구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17세기 이래 진행되어온 이 지역의 장구한 개간 활동은 20세기에 들어서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다. 특히, 연안지역에서 활발한 간척활동이 전개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 결과 이전의 대흥면(大興面)과

내덕도(來德島)가 합쳐져 대덕면(大德面)으로 통합되고 본격적인 개간・간척이 행해졌다. 주요한 것만 살펴보면, 1928년 대덕도청농장(大德都廳農場, 매립면적 142.9町步), 1929년 대덕서산농장(大德西山農場, 277.4정보), 1930년 관산금촌농장(冠山今村農場, 402.8정보), 1938년 대덕이상태농장(大德李商泰農場, 25.7정보), 1941년 관산위촌농장(冠山魏村農場, 18.4정보) 등이다. 이같은 '간척 붐(boom)'은 해방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하에서 보다 본격화되었다. 대단위 간척공사에 의해 과거 석교(石橋)에 의해 내왕하던 내덕도와 연안지역은 완전한 간척지로 연륙(連陸)되었다. 특히, 1968년 관산관덕농장(冠山冠德農場, 408.5정보), 대덕관덕농장(大德冠德農場, 373.5정보) 등의 간척사업에 의해 내덕도와 대덕・회진(구 제도면) 일대의 농업환경은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이다.[57] 1846년『제도양안』에서 확인된 연안지역의 개간・간척활동은 이같은 장기간의 사업 끝에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에 들어서 내덕도와 선자도(扇子島), 진목(眞木)・가옥(加玉) 일대는 과거의 지명인 회진면(會鎭面)으로 복귀하고 있었다.[58]

참고문헌

고광민,「평일도 '무레꾼'(海女)들의 조직과 기술」.『島嶼文化』10, 1992, 97~122쪽.

곽유석,「평일도의 쟁기」.『島嶼文化』10, 1992, 123~131쪽.

久間健一,『朝鮮農業經營地帶の硏究』. 동경: 農業總合硏究刊行會, 1950.

宮嶋博史,『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동경: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金京玉,「朝鮮後期 西南海 島嶼의 社會經濟的 變化와 島嶼政策 硏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金京玉,「朝鮮後期 金塘島 移住民의 入島와 封山運營」.『島嶼文化』17, 2001, 13~48쪽.

金容燮,『(增補版)朝鮮後期農業史硏究 II』. 서울: 一潮閣, 1990.

金容燮,「「古阜郡聲浦面量案」의 분석」.『東方學志』제76집, 1992.

박영한 오상학,『조선시대 간척지 개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朴準成,「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한국사론』제11집, 1984, 185~278쪽.

57)『長興郡鄕土誌』(長興郡鄕土誌編纂委員會, 1975), 151쪽 참조.

58)『대덕읍지』, 138쪽 참조.

宋亮燮,「조선후기 나주제도의 절수와 설읍논의의 전개」.『大東文化硏究』50, 2005, 377~419쪽.
宋讚燮,「17·18세기 新田開墾의 확대와 經營形態」.『한국사론』12, 1985, 231~304쪽.
安秉珆,『朝鮮近代經濟史硏究』. 동경: 日本評論社, 1975.
吳仁澤,「朝鮮後期 新田開墾의 性格: 肅宗代 南海縣 庚子量案의 加耕田을 중심으로」.『釜大史學』18, 1994, 435~462쪽.
吳仁澤,「18세기 중·후반 査陳의 실태와 성격」.『釜山史學』31, 1996, 85~122쪽.
李景植,「17世紀 農地開墾과 地主制의 展開」.『韓國史硏究』9/1, 1973, 87~125쪽.
李榮薰,『朝鮮後期社會經濟史』. 서울: 한길사, 1988.
李榮薰,「19세기 농민경영의 분화추세와 계층별 존재형태: 경상도 南海 龍洞宮庄土에 관한 사례분석」.『한국의 사회와 문화』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289~330쪽.
李榮薰,「量案上 主規定과 主名 記載方式의 推移」.『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서울: 민음사, 1997, 53~198쪽.
李哲成,「18世紀 田稅 比摠制의 實施와 그 性格」.『韓國史硏究』81, 1993, 63~94쪽.
李泰鎭,「15·6세기 한국 사회경제의 새로운 동향: 低地 개간과 인구 증가」.『東方學志』64, 1989, 1~18쪽.
李海濬,「長興郡의 沿革」.『長興郡의 文化遺蹟』. 國立木浦大學校博物館, 1989, 22~32쪽.
李海濬,「평일도 지역의 연혁」.『島嶼文化』10, 1992, 11~26쪽.
鄭勝振,「「靈光郡西部面改量案」의 분석」.『大東文化硏究』34, 1999, 303~330쪽.
鄭勝振,『韓國近世地域經濟史: 全羅道 靈光郡 一帶의 事例』. 서울: 景仁文化社, 2003.
鄭淸柱,「全羅左水營의 역사」.『全羅左水營의 역사와 문화』. 순천: 順天大學校博物館, 1993, 9~21쪽.
조경만,「금일지역 어민들의 생업과 공동체」.『島嶼文化』10, 1992, 71~95쪽.
최성락(외),『다도해 사람들: 역사와 공간』. 서울: 景仁文化社, 2003.

국 문 요 약

1846년 작성된 장흥부『제도면양안』은 명빈방장토(嫫濱房庄土)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7세기 이래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다수의 집락이 형성되면서, 18세기 중반 제도면(諸島面)이라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으로 출현하였다. 양안의 분석결과, 이 일대는 전작 중심지대로서 약 30% 대의 진전(陳田)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은 연안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하등전으로 구성되

었다. 이러한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이 지역에서 약 10%에 달하는 적지 않은 개간 비중은 경지황폐화를 저지하고 농지개발, 농업발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연안·도서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면에서는 입전(入田)이라하여 산간구릉의 개간, 수원(水源)이 있는 산곡간에서의 번답(反畓), 그리고 해택(海澤)이라하여 연안 간척의 제유형이 모두 확인되었다. 제도면의 개간·간척 활동은 해택·산지 개간과 인구증가·유입이 연안지역에서 도서지역으로 확산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개간의 주체는 50부(負) 미만의 소농민층이었다. 25부 미만층은 제도면 총면적의 42.4%, 25~50부층은 30.5%를 점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경영 상층이 미발달한 가운데 50부 미만층을 중핵으로 하는 영세 하층농이 두텁게 퇴적되어 있는 분화구조이다. 이들은 산간 구릉의 계단식 밭, 산곡간의 계단식 논, 그리고 방조제 안쪽의 간척논에 걸쳐 가족농 형태의 집약적 경영방식을 추구했다.

◉ 투고일 : 2007. 3. 12. ◉ 심사완료일 : 2007. 5. 29.
◉ 주제어(keyword) : 제도면(Islands-*myon*)(面), 제도양안(Islands cadastre), 진전(devastated land), 신전개간(reclamation), 소농민(little peasants).